

4(2)
-
161

회의문자①



益

더할 익

益자는 '더하다'나 '넘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益자는 '더하다'나 '유익하다'라고 할 때는 '익'이라 하고 '넘치다'라고 할 때는 '알'로 발음한다. 益자는 皿(그릇 명)자와 水(물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은 水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갑골문에 나온 益자를 보면 皿자 위로 水

자가 灂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물이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益자의 본래 의미도 '(물이)넘치다'였다. 그러나 넘치는 것은 풍부함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후에 '더하다'나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益자가 이렇게 '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다시 水자를 더한 溢(넘칠 일)자가 '넘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灂

갑골문

益

금문

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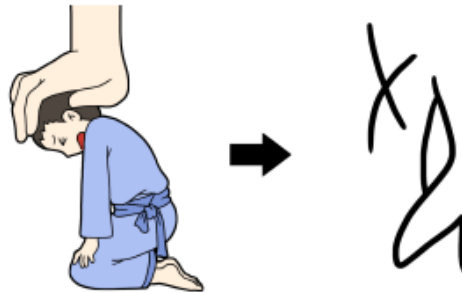
소전

益

해서

4(2)
-
162

회의문자①



印

도장 인

印자는 '도장'이나 '인상', '찍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印자는 卂(손톱 조)자와 卩(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印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을 손으로 눌러 무릎을 꿇기는 卂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印자는 이렇게 사람을 누른다는 의미에서 '누르다', '억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중국에서 도장 문화가 발달하면서 印자는 '도장'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扌(손 수)자가 더한 抑(누를 억)자가 '누르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卂

갑골문

印

금문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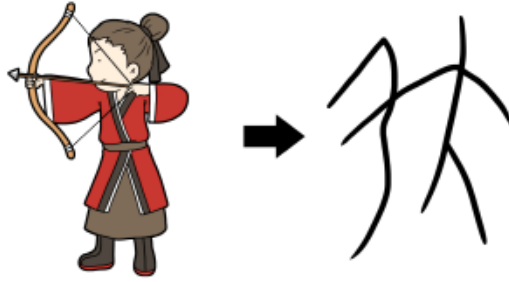
소전

印

해서

4(2)
-
163

회의문자①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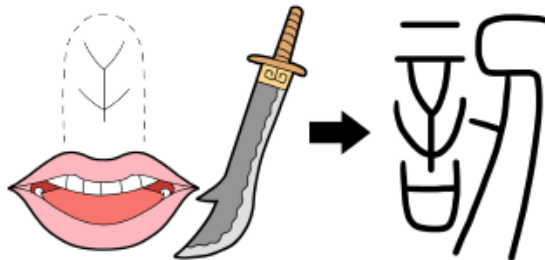
끌 인

리자는 '끌다'나 '당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리자는 弓(활 궁)자와 丨(뿔을 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리자의 갑골문을 보면 弓자에 大(큰 대)자가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일부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사람 대신 弓자에 획이 하나 그어진 형태가 𠂔 등장하기도 했는데, 소전에서는 이마저도 단순화되면서 지금의 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𠂔	𠂔	𠂔	𠂔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64

회의문자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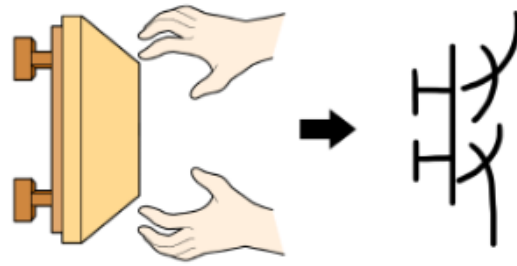
알[知]
인

認자는 '알다'나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認자는 言(말씀 언)자와 忍(참을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言자와 刃(칼날 인)자가 결합한 𠂔(말더듬을 인)자가 '인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𠂔자는 '말(言)을 분별하다(刃)'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러니까 𠂔자는 말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알다'나 '인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는 刃자가 忍자로 바뀌게 되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𠂔	認
소전	해서

4(2)
-
165

회의문자 ①



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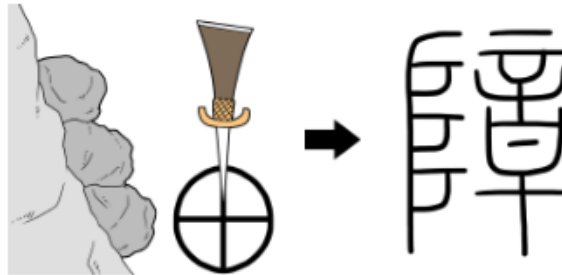
장수
장(·)

將자는 '장수'나 '장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將자는 𠂔(나뭇조각 장)자와 肉(고기 육)자,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將자의 갑골문을 보면 𠂔자에 양손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큰 평상을 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肉자가 더해지기는 했지만, 갑골문에서의 將자는 혼자서도 평상을 들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을 뜻했다. 참고로 지금의 將자는 '장차'라는 뜻으로도 가차(假借)되어 쓰인다.

갑골문	소전	해서

4(2)
-
166

형성문자 ①



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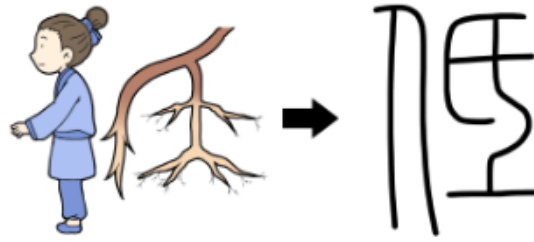
막을 장

障자는 '막다'나 '가로막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障자는 阜(β :언덕 부)자와 章(글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章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障자에서 말하는 '가로막히다'라는 것은 '산'이나 '언덕'에 의해 길이 가로막혔다는 뜻이다. 그러니 障자에 쓰인 阜자는 그러한 장애와 가로막힘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소전	해서

4(2)
-
167

회의문자①



低

낮을 저:

低자는 '낮다'나 '숙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低자는 人(사람 인)자와 低(근본 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低자는 땅속으로 뻗은 나무뿌리에 점을 찍은 것으로 '낮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렇게 '낮다'라는 뜻을 가진 低자에 人자를 결합한 低자는 '(사람의)신분이 낮다'라는 뜻이었다. 다만 지금의 低자는 사람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높다'의 반대말인 '낮다'로만 쓰이고 있다.

低

소전

低

해서

4(2)
-
168

회의문자①



敵

대적할
적

敵자는 '원수'나 '적', '겨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敵자는 商(밑동 적)자와 攴(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商자는 꽃의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 식물의 줄기 아래에 口(입 구)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밑동'이나 '뿌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뿌리'라는 뜻을 가진 商자에 攴자를 결합한 敵자는 '원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들에 대한 한(恨)은 가슴 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敵자는 뿌리를 강조한 商자를 응용해 깊은 한을 풀기 위해 적과 싸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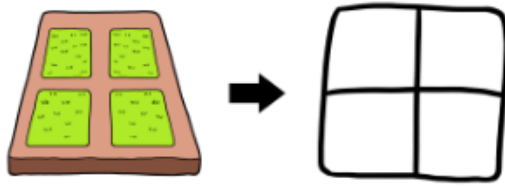
소전

敵

해서

4(2)
-
169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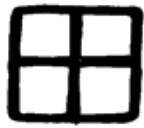
田자는 ‘밭’이나 ‘경작지’를 뜻하는 글자이다. 田자는 밭과 밭 사이의 도랑을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벼농사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가 정착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초 아래 중국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으니 田자는 중국 역사와도 매우 인연이 깊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田자는 벼의 재배법에 따라 조성된 밭을 본떠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밭’이나 ‘농사’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나 田자를 단순히 모양자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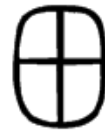
밭 전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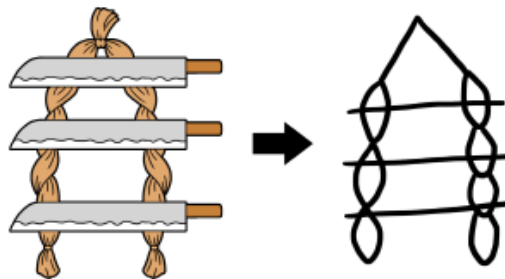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4(2)
-
170



絶자는 ‘끊다’나 ‘단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絶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色(빛 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糸자와 色자의 조합만으론 ‘끊다’라는 뜻을 유추하기 어렵다. 그러나 絶자의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絲(실 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칼이 𠂔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문에서도 위아래로 잘린 실과 刀(칼 도)자가 𠂔 그려져 있어서 역시 칼로 실을 잘랐다는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刀자가 色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絶

끊을 절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